



세계문화유산 지정후 영산재 첫 해외공연



공연이 끝난 후 관객이 일운 스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영산재 공연 모습.

영산재, 캐나다 참전용사 넋을 달래다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우리의 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를 강강술래 등과 함께 세계무형유산으로 채택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의식인 영산재가 우리의 것을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이 된 것이다.

그리고 2009년 11월 11일, 영산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까지 40여 개국에서 순회공연을 펼치는 등 영산재 알리기에 힘써온 태고종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회장 일운)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영산재를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공연에 나섰다. 그 첫 번째 공연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다.

11월 11일, 캐나다의 현충일인 리멤버런스데이(Remembrance day). 캐나다 토론토 브람튼 소재 캐나다한국전참전용사모역에서는 사상 최초로 <반야집경>과 영산재보존회 일운 스님의 발원문 낭독이 이어지고 있었다. 영산재보존회 스님 15명이 공연에 앞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캐나다 500여 한국참전용사 영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공식적으로 묘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공연은 영산재를 통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이 된 영산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회장 김미영)의 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보호재

단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88울림곡 앨범이 걸려있는 캐나다 토론토한인회관. 추모행사를 마친 공연팀이 도착했다. 보존회 회장인 일운 스님이 마지막으로 무대를 점검한다. 전날 청산 스님을 비롯한 무대 진행 팀은 한국에서 모셔온 괴불을 모셔 걸고, 금전과 은전, 번, 지화, 도량장엄 등 손수 무대를 만들었다. 한 쪽에서 수민 스님이 정성껏 가사를 다리고 있고, 함께 공연을 펼칠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회원들과 김미영 회장이 합류했다. 최종 리허설을 마친 후 일운 스님과 한국무용연구회 회원들은 공연에 앞서 영산재 의식무인 바라춤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홍지인 주 캐나다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를 비롯한 교민들과 한국전참전용사와 현직인 등 500여명의 시선이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영산재의 막이 올랐다. 핀조명이 울림목탁소리를 따라 무대로 향한다. 도량식이 끝나자 살풀이춤이 이어진다. 신중작법과

전수바라, 향화계, 나비춤이 이어지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진다. 희곡과 오고무가 이어지며 공연은 무르익는다. 더욱 힘찬 박수가 쏟아지고 500여 명의 관객은 눈앞에서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의 한 장면인 '영산재'를 보게 된다.

회향을 끝으로 2시간여의 영산재 토론토 공연이 무사히 끝이 났다. 공연을 마친 보존회 스님들과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회원들은 공연을 위해 흘린 땀과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고,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공연팀을 배웅했다.

공연을 마친 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은 "영산재가 세계유산임을 알리기 위한 첫 공연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기쁘다"며, 아울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연과 홍보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영산재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리멤버런스데이에 한국전참전용사모역서 영가 위로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초청... 바라춤 주제 워크숍도



한국전 참전용사와 교민들이 영산재를 관람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성사시킨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김미영 회장은 "영산재 공연을 통해 이곳 캐나다에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59년 전 한국전쟁의 아픔을 위로하는 계기가 됐다"며 "세계유산이 된 우리의 영산재가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영산재는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이 됐다. 이번 캐나다 공연을 시작으로 더 많은 공연을 기대하며, 우리 문화와 우리 불교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길 기원해 본다.

캐나다 토론토/글·사진=박재원 기자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사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기력이 저해하여
반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6cm 155,000원
→ 원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
과 복판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항
이 행어쳐 나와 애용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
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저장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반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오심,구,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음(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약돌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